

재일조선인문학의 양상*

— 『조선시보(朝鮮時報)』를 중심으로—

吳恩英**

(e-mail : decency5@hanmail.net)

<목 차>

- | | |
|-------------------------|------------|
| 1. 머리말 | 3.2. 수필 부문 |
| 2.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역할과 변화 | 3.3. 소설 부문 |
| 3. 『조선시보』에 게재된 문학 관련 기사 | 3.4. 서평 부문 |
| 3.1. 시 부문 | 4. 맺음말 |

キーワード：在日朝鮮人文学(Literatu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総連の機関紙 (bulletin of *Chongryen*), 『朝鮮総連』(The *Chosen Chongryen*), 『朝鮮時報』(The *Chosen Jihō*), 『朝鮮新報』(The *Chosen sinbo*)

1. 머리말

재일조선인에 의해 발행되는 신문, 잡지는 1950년대와 1960년대가 가장 활발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총련 산하의 기관지(紙, 誌)는 1963년 무렵 신문으로는 조선어판 일간지 『朝鮮新報』, 일본어판 일간지 『朝鮮通信』와 주간지 『朝鮮時報』, 영어판 주간지 『人民朝鮮』, 그리고 잡지에는 일본어판 월간지 『朝鮮画報』, 『新しい世代』 등 23종의 정기간행물이 발행되고 있었고 그 발행부수는 수십만 부에 달한다고 『조선시보』(1963년 6월 1일자)는 전하고 있다. 최근 잡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아직 신문¹⁾에 대해서는 극히

* This work was supported by JSPS KAKENHI Grant Number JP19K13151.

** 大阪経済法科大学 객원연구원 재일조선인문학

1) 한국의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민족문화적 성격연구』(한승옥외, 국학자료원, 2007년)는 재일동포의 기관지(『조선신보』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고, 일본의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송혜원, 岩波書店, 2014년)는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잡지와 신문 등을 다루면서 재일조선인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적은 편이다. 당시 일상생활에서 잡지보다는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재일조선인에 대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신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총련의 『조선신보』(1945년 창간 당시는 『조선민중신문』으로 발행), 민단의 『민단신문』(1946년 창간 당시는 『조선신문』으로 발행), 중립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통일일보』(1959년 창간 당시는 『조선신문』으로 발행)가 있다. 세 신문 중에 『조선신보』는 조선어로 발행하는 유일한 신문이며 재일조선인(작가)이 민족적 자각과 자부심을 갖는 신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1956년 12월부터 총련 산하의 기관지 일본어판 『조선총련』을 발행하기 시작한다. 당시 총련의장이었던 한덕수는 기관지를 통하여 일본인에게 조선인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호소하기 위해, 그리고 일본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간호(1956년 12월 8일자)에서 발행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행 취지는 『민주조선(民主朝鮮)』(잡지, 1946년 6월부터 1950년 7월까지)을 발행할 때도, 그리고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장혁주와 김사량도 유사한 이유로 일본어를 통하여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인)’을 이해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러한 발행 의도에 맞게 조선과 일본의 친선도모를 위해 조선의 문화, 문학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허남기(許南麒)의 「二つの旅」(수필, 1960년 6월 20일자)처럼 조선과 일본의 우호와 친선의 가교 역할에도 힘써야 한다는 글도 적지 않다. 조선어로 발행되는 『조선신보』보다는 작품수가 적은 편이지만 민단의 기관지보다는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문학의 양상을 재조명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조선총련』이 창간된 1956년 12월부터 1962년도까지 기관지에 실린 작품(시, 수필 등)을 비롯해 문학과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사회와 그 문학의 변용에 대해 검토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2. 『조선시보(朝鮮時報)』의 역할과 변화

1956년 12월 8일부터 일본어로 발행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총련』²⁾은 1961년 1월2일자부터 『조선시보』로 개제되어 2005년

2) 신문명이 수회 개제되어 있어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경우 일본어판은 『조선시보(朝鮮時報)』로, 조선어판은 『조선신보(朝鮮新報)』로 통일하고 구체적으로 인용할 때

9월 16일자까지 발행되었다. 조선어로 발행된 『조선신보』에 비하면 일본인에 의한 기사가 많고 연재소설보다는 시가 많이 게재되어 있다. 독자의 대상이 조선어를 모르는 재일조선인이나 일본인이라는 점도 있지만, 상기의 한덕수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맞게 일본인의 글을 적극적으로 게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백두천(白頭天)의 조선민보사 방문기(1958년 11월 11일자)에는 『조선민보』의 역사³⁾를 엿볼 수가 있다. 조선민보사에는 활판 인쇄기가 3대, 오프셋기계, 주조기가 있었다. 2층에는 조선어 활자 이외에 일본어, 영어 활자도 갖추고 있었고 1966년 무렵에는 총련 결성 10주년을 기념하여 에스파냐어판 『인민조선』을 발행해 당시 4개 국어(『조선신보』, 1966년 4월 6일자)로 발행될 정도로 인쇄가 발달되어 있었다. 1958년 현재 김민화 사장을 비롯해 종업원 50여명, 전국 약 3백여 지분국(支分局)이 있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조선인에 의한 민주적 민족 언론기관으로 조국과 재일동포의 목소리를 조선어를 모르는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총련』(1956년 12월 8일자, 이하 『조선총련』 및 『조선시보』는 날짜만 표기한다.)에 의하면 총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달성’, ‘인권옹호’, ‘한일회담’을 반대하기 위한 활동,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 반대운동과 함께 민족교육, 문학, 문화 등에 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다. 1957년대 초부터는 귀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귀국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재일조선인 대부분이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어려운 생활난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취직 문제가 심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일하고 있고,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도, 자신의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며 ‘민족의 차이와 차별에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끝내는 절망적인 자살이나 반항적인 집단비행 사건 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조선인으로서 독립국가공민으로서 자각과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모순에 찬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곤란과 역경을

는 발행 당시의 명칭을 사용한다.

3) 오은영(2018a) 「在日朝鮮人文學における様相—『解放新聞』(1952年9月~1953年12月)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 제78집, 2018년 8월)를 참조(321쪽의 표 【總連系の新聞】 중에 표기 오류가 있었다. 「해방신문」은 1952년 5월 복간 당시에는 일본어로 발행되었고 1952년 9월에 조선어판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원할하게 진행하도록 북한에서는 ‘4억2천여만 엔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비’(1959년 2월 1일자)⁴⁾ 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귀국운동에도 직결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1960년 2월 8일자 이교순(李教舜) 의 「출항지·니가타(出港地·新潟 街中に朝・日親善の雰囲氣溢れる)」에는 조·일 우호친선의 상징으로 니가타시에 심어져 있는 ‘버드나무 거리’⁵⁾와 함께 귀국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귀국자 중 46%가 무일푼, 외환 교환은 54%(54세대)이고 일인당 평균 6천6백6십엔, 짐은 1세대당 평균 10 개라고 ‘日赤センター’와 ‘총련 니가타 출장소’의 조사를 기술하며 당시 재일조선인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가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함께 1959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민(金民)과 한라(韓羅) 등에 의해 「船を待つ人びと」라는 제목으로 귀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경과 준비하는 모습이 연재 형식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총련과 민단은 이념의 차이로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우호적 관계를 갖기도 했다. 1961년도에 ‘4·19남조선 봉기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1961년 3월 27일자)가 4월에 도쿄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총련과 민단의 문화인과 예술인들이 모여 문화제를 실시하고 7월에는 2번째 공동공연이 개최되었다. 문화제뿐만 아니라 「민단 여성도 함께(民団女性とともに男女平等權法令實施を記念して東京朝鮮女性大会)」(1961년 7월 29일자), 「8·15를 함께(八・一五をともに祝賀 各地の総連、民団同胞たちが)」(1961년 8월 19일자) 등의 기사처럼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민단과 단합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총련기관지 『조선신보』와 『조선시보』가 독자에게 거듭 전하고 있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민족교육’, ‘남녀평등’ 등에 대해서이다. ‘모국어와 문자에 의한 민주민족교육을 실시하여 일반 성인에게 남아 있는 식민지 노예사상과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 문맹을 일소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4) 1963년 6월 1일자 『조선시보』에는 북한에서 1957년 4월부터 1963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25억 3백 32만 39백 7엔의 교육비와 장학금을 보내왔고 1959년부터 4년 동안 106회에 걸쳐 79,281명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

5) 버드나무거리(ボトナム通り)는 1959년 11월 6일에 조·일 우호친선을 상징하기 위해 니가타시에 버드나무 305그루를 심은 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시(정백운(鄭白雲) 「ボトナム通り」よせて) 1960년 2월 15일자)나 기사(「ボトナム通り」植えかえ式 北村新潟県知事が鍬入れ) 1960년 12월 5일자가 여러 번 게재되고 있었다.

(1963년 5월 25일자)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오랜 봉건적 풍습에서 빠져나와 모국어와 문자를 습득해서 ‘충명한 공화국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생활’ (1963년 6월 1일자) 하는 것이 추진되어 성과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기사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네 컷 만화 (1959년 6월부터 전철의 「オモニ教育」가 연재)를 활용하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조선시보』는 『조선신보』의 홍보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유일한 민족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3주년을 기념해서 1961년 9월 9일자부터 일간으로 발행하고 (1961년 7월 29일자) 독자를 확대하고 증지한다고 (1962년 2월 3일자, 2월 17일자) 독자에게 알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어 학습의 성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조선시보』에 게재된 문학 관련 기사

『조선총련』에는 거의 매회 문학, 문화 등 여러 예술부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 북한의 귀국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귀국에 관한 수필과 시가 많이 실려 있었고 「행복과 희망, 확신에 차서(幸福と希望、確信にみちて 帰国した文学、芸術人たちの近況)」(1961년 2월 20일자)처럼 귀국한 예술인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1961년에 『조선시보』로 개제한 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한 사람들의 소식을 비롯해 북한의 상황, 그리고 4·19혁명, 5·16쿠데타 등 한국의 정세 변화가 문학에 반영되고 있었다.

『조선시보』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만이 아니라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허남기 역, ハク書房), 이기영의 장편소설 『고향』(상·하, 이은직 역, 朝鮮文化社), 한설야의 장편소설 『대동강』(이은직 역, 東方社) 등 조선, 북한에서 발표된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판된 것을 소개하고 있었다. 번역에는 일본인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김민은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上·下, 1960)가 무라카미 도모유키(村上知行)라는 일본인에 의해 번역되어 일본에 처음 소개되는 현대조선문학이라는 것에 의의가 크다 (1960년 5월 16일자)고 강조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으로는 김달수, 김민, 이은직,

허남기, 안우식 등이 번역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다.

허남기(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위원장, 1959년 6월)의 활약은 『조선총련』에 이어 『조선시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보』로 개제된 후에는 그의 시와 수필뿐만 아니라 문학에 관한 기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연재소설은 창간된 이후 1962년도에 김병두(金秉斗)의 「德利をもらいそこねた男」(1월 6일부터 총 3 회)와 박춘일(朴春日)의 「走る人たち」(10월 20일부터 총 8 회) 2편이고 그 이외에는 이미 조선에서 간행된 소설, 또는 조선의 민화 등을 번역한 것이다. 작품란의 구성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안해서 편집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박춘일의 「走る人たち」는 3 회부터 제목 옆에 ‘今週からお読みの方に’라는 란을 만들어 이전의 내용을 몰라도 줄거리를 읽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953년 2월에 「인민군 창건 5주년 기념 「문학예술상」」이 제정된(『解放新聞』 1953년 2월 6일자) 이후 매년 ‘문예작품 현상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선총련』에서도 작품모집에 대해 알리고 있었다. 1958년 9월 21일자 이진규(李珍珪, 총련중앙교육문화부장)의 심사평을 보면 문예 작품 부문의 응모자는 대부분 20대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해방 당시 6, 7세로 조선인학교 등에서 조선어를 배운 사람들이다. 내용은 동포들의 생활을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불합리한 생활 속에서도 강하고 바르게 살아온 기백이 작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의 문학활동은 북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작가동맹 기관지 《文学新聞》에는 1960년 12월에 재일조선인 작가 허남기, 남시우, 김민에 이어 류벽(柳碧)이 조선작가동맹의 맹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류벽은 재일조선인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조선대학 조선문학과 교원 등을 역임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조선신보』, 문예동 기관지(잡지)에도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誇り》는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테마로 한 우수한 작품으로 《文学新聞》에서 높이 평가되고(1961년 1월 23일자) 있었다. 1961년 3월 28일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 도쿄대회(アジア・アフリカ作家会議東京大会)」에 북한 작가가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네 사람(허남기(단장·시인), 남시우(시인), 김민(작가), 류벽(작가))이 대신 참가했을(1961년 3월 27일자) 정도로 당시 4명의 문학활동은 활발했었고 북한 작가동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작가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밖

에 안우식(도쿄 조선중·고교 교원), 박경식 등 조선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작가 또는 시인, 평론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朝鮮総連』⁶⁾

日付	隨筆	詩	小説	作家名
1957年 3月15日		春		許南麒
11月15日	練馬ずいひつ(1) 文は人なり			金達寿
12月18日	練馬ずいひつ (2) 南朝鮮の新聞			金達寿
1958年 9月21日		詩法—吳東輝に—		許南麒
10月1日	われわれを祖国に帰せ			金民
1959年 1月1日		わたしは天馬を見た		許南麒
1月11日		冬の木		李錦玉
4月11日		入学		李錦玉
5月21日		アイデア—《韓国》通信		許南麒
6月15日		炎のつどい—総聯第五次全体 大会に捧げる—		許南麒
1960年 1月4日		船出		許南麒
1月18日		新潟		許南麒
1月18日		熱い抱擁		鄭白雲
2月15日		ボトナム通りによせて		鄭白雲
5月30日	抗争の南朝鮮に寄せて =抗争の隊列をはばむ力はない			韓羅

『朝鮮時報』

日付	隨筆	詩	小説	作家名
1961年 1月2日	五月晴れのソウル市で —しかしこれは夢であろうか—			金達寿
1月2日	栗を盗んだ大晦日 故郷での正月を思う			金民
1月9日		時によせて		鄭白雲

6) 표는 지면상 본고에서 다루는 재일조선인의 시, 수필, 소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3月13日	蜂起!あれから一年 馬山から 聞こえてくる足音			金達寿
4月8日		三日の歌—アジア・アフリカ 作家会議東京大会で—		許南麒
5月20日	祖国の息吹きをもとめて 久しぶりにいった新潟			金達寿
7月8日	新しい世代の進出 —一つの予言をめぐる—			金達寿
7月29日		平和統一の願いこめて —七・三〇記念集会場で—		李錦玉
8月19日		われわれは訴える—第七回原水 爆禁止世界大会における—		許南麒
9月30日	米帝の手先となるな! —民団幹部に訴える—			金達寿
12月23日	わが同胞生活の一面 —弘前「模範分会」を訪ねて—			金達寿
1962年 1月6日~ 1月20日			徳利をもらいそ こねた男 (総3回)	金秉斗
4月14日		うた		許南麒
5月5日	演説について			金達寿
6月30日		とどけ! 波濤を越えて—南朝鮮 の国軍将兵となっている 弟 竜徳への手紙に変えて—		呉林俊
9月1日	チマ・チョゴリの話			全哲
9月8日		チョゴリ		李錦玉
9月22日		オモニ		李錦玉
10月20日~ 12月22日			走る人たち (総8回)	朴春日

3.1. 시 부문

『조선신보』에 비하면 『조선시보』에는 다른 장르보다 시가 많이 게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이었던 허남기의 시(「詩法—吳東輝に—」(1958년 9월 21일자), 「わたしは天馬を見た」(1959년 1월 1일자) 등)가 많이 실려 있다. 그의 문학 또는 문화와 관련된 기사는 『조선신보』에는 북한과 관련된 소재가 많은 반면, 『조선시보』에는 북한의 현대문학보다는 조선의 고전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거나 재일조선인과 관련

7) 허남기는 「詩人百話」(1961) 같은 란을 통해 조선문화와 허난설이나 임벽당김씨 등의 시를 중심으로 조선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된 소재가 중심이 되어 있어 양 신문의 게재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이디어(アイディア)—《韓国》通信」⁸⁾ (1959년 5월 21일자) 처럼 한국 정세에 대해 비판하는 시나 「炎のつどい —総聯第五次全体 大会に捧げる—」 (1959년 6월 15일자) 같은 북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가 있기도 하지만 「春」⁹⁾ (1957년 3월 15일자), 「船出」 (1960년 1월 4일자), 「新潟」 (1960년 1월 18일자) 등 북한으로 귀국하는 모습과 함께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어려운 생활을 중심으로 그린 시도 적지 않다.

이금옥(李錦玉, 문예동 문학부원(1961년 무렵))은 일찍이 1950년대에 『민주조선(民主朝鮮)』 (1946년~1950년)에 참가한 시인이다. 그녀는 허남기처럼 조선의 시(「朝鮮の現代詩と詩人」 1962년부터 6개월 정도)를 번역하기도 하고 조선어보다는 주로 일본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조국에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에 설레고 있는 심경이 그려진 「冬の木」 (1959년 1월 11일자), 조선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入学」 (1959년 4월 11일자)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금옥의 「平和統一の願いこめて —七・三〇記念集会場で—」 (1961년 7월 29일자), 「チョゴリ」 (1962년 9월 8일자), 「オモニ」 (1962년 9월 22일자) 등을 보면 ‘약한’ 여성이지만 내면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여성 시인으로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한 그녀의 표현방법에는 송혜원이 언급했듯이¹⁰⁾ 총련의 문학운동과 여맹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정백운(鄭白雲)의 시(「熱い抱擁」 (1960년 1월 18일자), 「ボトナム通りによせて」¹¹⁾ (1960년 2월 15일자) 에는 북한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 니가타항에서 귀국을 준비하는 귀국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화가이기도 한 오림준(吳林俊)의 「とどけ! 波濤を越えて—南朝鮮の国軍將兵となっている弟竜徳への手紙に変えて—」 (1962년 6월 30일자), 이회성 「その炎をうたえ」 (1963년 4월 27일자) 등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비판하는 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비판의 중심 대

8) 「だから僕は一策を案じて/とげのない自由な空気/憲兵の匂いのしない蒸留水の/瓶詰を売出して/ひともうけけることを/始めるのだが/さて いよいよ売出す段になって/はたと困ってしまう(중략)僕のアイデアは/いたずらに自分の作った蒸留水の中で/とげを生やしはじめる」

9) 「(생략)解放はされ/祖国は還ったが/おれたちはこの国では/いつまでも昔のままのあつかい/職もなく/商売もできず/帰ろうにも帰してもらえず/またやはりこの浜で/カンカラを拾う/空びんを拾う/屑鉄を拾う(생략)」

10) 宋惠媛(2014) 『「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岩波書店, pp.82-87.

11) 「(생략)帰国船を歓送・迎する./共和国の旗を持った人たちも、/日の丸の旗を持ったひとたちも。(중략)このボトナム通りから始まり/ボトナム通りをゆき交うひととびとによって叫ばれる(생략)」

상은 대부분 미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의 시도 게재되어 있는데 허남기를 비롯해 김수사(金樹史) 등이 귀국과 관련된 조벽암(趙碧岩)¹²⁾이나 정서촌(鄭曙村)¹³⁾ 등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도 적지 않다. 그 밖에 조선학교에서 발행된 문집이나 시집을 소개하기도 하고 여성 시인이거나 일본인 시인의 시도 게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히로시마의 어느 일본 노동자가 투고한 시 「조선복(朝鮮服)」을 보면 재일조선인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メーデーのいきれいの中に/朝鮮服を着た娘たちが居た/娘たちはピラを配っていた。(중략)
 それでもどんなにこの娘たちは誇り高く生きていることか (중략) ふるさとを遠くはなれたこの土地
 で/チョゴリを着たことが/娘たちにはうれしいのだろうか(중략) “わたしの国は/こんな美しい着物も
 あるのです/私たちのように美しい娘もいっぱいいるのです。/そして私はそこへ帰りたいのです
 “/(중략) 朝鮮と日本のプロレタリア万歳! 金日成首相万歳! (1960년 5월 23일자)

이 시에는 ‘朝鮮服’, ‘誇り’, ‘ピラをくばる’, ‘祖国’이 전부 ‘娘’와 이어져 있고 ‘저고리를 입은 여성’에게 주목하고 있다. 즉 ‘조선복’ 또는 ‘저고리’를 통해 ‘조선’과 ‘여성’을 결부시켜서 조선(북한)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재일조선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여성이 입은 ‘조선복’을 통해 ‘조선’을 연상하는 것이 정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을 부각시키는 현상은 『조선신보』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2. 수필 부문

『조선시보』와 『조선신보』에는 상기의 시를 비롯해, 수필, 수상(隨想), 청담(淸談), 르포르타주, 기행문, 수기 등 장르명을 명확히 기재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장르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예를 들면 쓰시마에 신설된 총련회관과 쓰시마에 살고 있는 동포에 대해 쓴 이은직(李殷直)의

12) 조벽암의 「중작역」 (1958년 10월 21일자) 에는 남조선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부산과 여수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一刻も早く機関車よ/おまえがわたしと約束した/南への路をつつ走ってくれるその日を——」라고 읊고 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조선이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13) 김수사(金樹史)가 번역한 정서촌(鄭曙村)의 「待つところ」 (1959년 9월 7일자) 는 재일조선인의 곤란한 생활을 그리면서 조국에 귀국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다.

「對馬紀行」(1961년 12월 9일자)은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기행문이라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빈곤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남한의 아이들에 대해 쓴 김태생(金泰生)의 「南朝鮮の少年」(1962년 1월 27일자) 같은 경우는 장르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필에 가까운 글이기도 하다. 수필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작가와 그 작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달수의 작품은 『조선신보』보다는 일본어로 발행되는 『조선시보』 쪽에 글이 더 많이 실려 있다. 그 중 제일 많은 1961년도에는 「봉기! 그 후 1년(蜂起! あれから一年 馬山から聞こえてくる足音)」(3월 13일자), 「조국의 숨결을 찾아(祖国の息吹きをもとめて 久しぶりにいった新潟)」(5월 20일자) 등 6편이 게재되었다. 먼저 1957년 12월 18일자 「南朝鮮の新聞」를 보면 이것은 한국의 각 신문사가 1950년대에 다발했던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에 김달수는 찬사를 보낸다는 글이다. 『경향신문』에는 미군의 범죄 중 ‘평사냥 중 오발’이라는 변명이 반복되는 상황을 만화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 만화는 미군의 눈에는 조선인이 평으로 보이는 것 같으니 렌즈와 안경을 보내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은 『총련신문』에도 연일 보도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김석범 또한 「평사냥」(『조선신보』1961년 12월)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5월의 맑게 갠 서울에서(五月晴れのソウル市で—しかしこれは夢であろうか—)」(1961년 1월 2일자)는 꿈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쓴 글이다. 경성신문에서 같이 일한 장 씨를 도쿄에서 만났다. 장 씨에게 오늘 경축대회에는 김일성 원수가 와서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에서 깬다. 하지만 김달수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김일성 원수가 남한에서 경축인사하는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우리 동포 생활의 일면(わが同胞生活の一面 —弘前「模範分会」を訪ねて—)」(1961년 12월 23일자) 등이 있는데 김달수의 수필은 미국, 한국, 민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총련에서 활동이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 『조선신보』에서도 작가로서 작품 활동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쓰여졌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김민은 『조선신보』와 『조선시보』에 수필 및 소설 등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수필은 『조선시보』에 2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우리를 조국으로 돌려보내라(われわれを祖国に帰せ)」(1958년 10월 1일자)는 제목 그대로 귀국에 대하여 쓴 글이다. 북한에 돌아가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하지만 귀국하는 조선인들의 태어난 곳이 거의 남한이며 그곳에 부모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오늘날 조선인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이후 귀국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1961년 1월 2일자에 「밤을 훔친 설날 그믐날(栗を盗んだ大晦日 故郷での正月を思う)」이 게재되었다. 이 글에는 김민의 부모가 북한으로 귀국했고 예전에는 설날에 여자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당과 정부의 배려로 모두 설날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허남기의 수필 중에 다음 2편에 주목하고 싶다. 하나는 「二つの旅」(1960년 6월 20일자)인데 이것은 일본인 문학단체가 조선문학에 대한 강연을 의뢰해 상기의 김민과 함께 지바(千葉)와 히로사키(弘前)에 갔다와서 쓴 것이다. 허남기는 ‘서로가 상대의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아야, 비로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여행은 이러한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처럼, 우리 쪽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일본인들 자신이 만들어 준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여행이었다’고 한다. 허남기는 강연을 통해서 일본인이 조선을 알려고 하지만 조선인들 자신은 조선을 알리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고 일본인의 잘못된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도 조선인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한 과제를 풀어야만 조선과 일본의 친선과 우호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여행에 동행한 김민 역시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인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1960년 8월 15일자)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불효자의 계절(親不孝の季節 孝行ができる時代をつくるために)」(1960년 8월 15일자)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데모에 참가하는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것인데 그의 생애 일부¹⁴⁾도 엿볼 수가 있는 글이다. 그는 중학생 때 학교에서 요주의 학생이었고 21살 때 충청남도 천안에서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잡혀 몇 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낸 적도 있다. 1942년 늦여름에 조선에

14) 『〈在日〉文学全集 第2卷 許南麒』(勉誠出版, 2006년)의 연보를 보면 1942년 9월, 10월 무렵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조선에 갔다고 언급하고 있어 활동 시기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갔다 12월에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조선의 땅을 밟지 못했다. 자신의 불효를 떠올리며 4월에 서울 데모에 참가해서 죽은 한성여자중학교 2학년 진영숙의 시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한다. 데모에 참가하는 1946년 무렵부터 1960년이 남한과 일본에 있어서 ‘불효자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거쳐야만 다음 세대가 효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에 대한 글은 허남기뿐만 아니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마산 부정선거 반대시위)’를 비롯해 남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미국의 철퇴를 바라는 결의문을 도쿄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는 한라(韓羅)의 「抗争の南朝鮮に寄せて=抗争の隊列をはばむ力はない」(1960년 5월 30일자) 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 수필 등 많은 글을 통해 한국의 정세를 알리고 있었다.

수필 중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만화가 전철의 「치마·저고리 이야기(チマ・チョゴリの話)」(1962년 9월 1일자)이다. 이것은 ‘김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기념일’ 전날에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하며 쓴 글이다. 전철은 저고리의 화려한 색 때문에 입을 것을 주저하는 아내에게 당연히 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치마·저고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적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나라의 여성의 옷이 압도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의상인 것이다. 하지만 해방 전 소학교 2, 3학년 무렵에 치마·저고리는 전철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시대가 바뀌어 지금은 치마·저고리를 당당하게 입을 수 있다. 여맹(여성동맹)의 슬로건에도 “축제일에는 치마·저고리를!” 입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아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솔직한 감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필에서도 역시 ‘남성’ 또는 ‘남편’은 조선의 의상이 ‘여성’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성’ 또한 당연히 자신이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곧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위의 시 부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저고리’를 입은 조선 여성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 1946년에 ‘남녀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신문(『해방신문』)에 ‘여성특집호’가 발행되어 여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한 하나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47년 10월에 결성된 ‘여성동맹’과 조선학교의 ‘어머니회’가 연계하여 ‘어머니’의 역할이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이데올로기적으로 되어 간다.¹⁵⁾ 1962년 2월부터 『조선시보』는 3월에 열리는 ‘재일 조선인 어머니 대회’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

하며 어머니의 역할이 보다 확대 강화되어 간다. 즉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로 인해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조선인의 여성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저고리를 입은 남성’에 대한 표현은 극히 드물고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저고리’는 여성과 조국(조선)을 연상시켜 그 이미지가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3.3. 소설 부문

창작소설은 『조선시보』가 창간된 이후 1962년 12월까지 2편이 실려 있다. 한 편은 1962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서 게재된 김병두(金秉斗, 『조선시보』의 편집부원 기자)의 「술병을 못 받은 남자(徳利をもらいそこねた男)」이다. 윤희철은 김상삼에게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환영 행사에 참가하면 일당 500엔과 술 한 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에 민단분단장의 집을 찾아가 확인을 한다. 하지만 웬지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다. 환영 행사에 나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당화시킬지를 고민하다 그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한다. 다음날 환영 버스에는 16명이 타고 있었다. 하네다 공항에 가까워지자 바깥에서는 “매국노 박정희 레일반대”라는 현수막과 군중이 모여 있었다. 윤희철은 무사히 환영 행사에 갔다 돌아갈 수가 있기를 바랐지만 밖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고민하다가 마음이 바뀐다. 공항 안은 환영 준비로 한창이었다. 윤희철은 “특별기”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검은 안경’을 향해 “돌아가라, 살인자”라고 외쳐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전치 1달이라는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 소설은 3회 분량의 짧은 소설이지만 국적의 문제, 조직(총련, 민단)의 문제, 주인공의 고향이 남한이라는 점, 가난함, 그리고 당시 한국의 정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 한 편은 박춘일(朴春日,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맹원 및 『조선시보』의 기자)의 「달리는 사람들(走る人たち)」이다. 1962년 10월 20일부터 1962년 12월 22일까지 8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이 연재소설은 3회부터 ‘이번 주부터 읽으시는 분에게(今週からお読みの方に)’라는 란이 있어 앞의 내용을 몰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走る人たち」의 마원석은 해방 후에 일본 동북지방에서 양돈, 양계장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고 북한과 총련을 신

15) 洪ジョンウン (2015) 「女性同盟」とオモニ・アイデンティティー—1960年代在日朝鮮人の民族運動における女性たちの遂行性を中心に—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関西社会学会, pp.5-11.

되지 않는 사람이다. 어느 날 회합이 있어 K 마을 민단지부장 이성택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날 이성택에게 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 소문은 자신의 딸이 빨갱이(총련의 활동가 최영철)와 사귄다는 것이다. 마원석은 딸에게 최영철과 사귀지 말라고 권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을 축제의 하나인 마라톤에 참가한 최영철이 달리는 속도에 리듬을 타는 듯이 ‘평화통일’을 조선어로 외치는 모습에 마원석은 감명을 받는다.

이 작품의 시대배경은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이고 ‘국가재건’을 위해 재일교포 실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원석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총련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국의 ‘평화통일’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늙은 최영철의 모습을 통해 마원석의 마음이 총련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조선신보』에 게재되어 있는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재일조선인이 총련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김병두의 「徳利をもらいそこねた男」에서도 나타났듯이 민단뿐만 아니라 조직에 관련이 없어도 한국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판의 대상으로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는 남한을 고향으로 둔 재일조선인의 절망의 목소리가 내포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창작소설 외에는 박지원의 『兩班伝』, 『許生伝』 (허남기 역) 등의 조선문학과 이택기·전여준의 오체르크 「金剛山夫婦物語」,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朝鮮労働党出版社)에는 최광(崔洸)의 「折れた銃床」 등 북한문학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었다. 1962년에 게재된 회상기는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학습지로 『조선시보』에서도 권장하고 있었다. 조선어로 발행되는 『조선신보』에는 1년에 적어도 창작 연재소설이 2, 3편 이상 실려 있다. 같은 해(1962년)만 해도 『조선신보』에는 5편이 연재된 것을 생각하면 『조선시보』의 일본어 창작소설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두 작품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3.4. 서평 부문

시, 수필, 소설 등에 당시의 귀국문제를 비롯해 당시 재일조선인의 상황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세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는데 서평 부문에서는 총련

및 기관지에서 바라는 ‘조선인상’이 좀 더 명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그 중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김달수의 작품이다. 김달수는 1958년 당시 제일조선문학회 간부 및 조선문제연구소 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1958년 9월에 간행된 김달수의 『朝鮮』(岩波新書)을 두고 조선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서평회의 내용과 남시우, 김종명을 비롯해 투고자에 의해 지적된 내용¹⁶⁾이 『조선민보』에 게재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조선총련』에도 보도될 만큼 비판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백종원(白宗元, 조선문제연구소 소원)¹⁷⁾의 서평(「歪めた民族の歴史と文化 金達壽著「朝鮮」を読んで」, 1958년 11월 11일자)을 보면 김달수는 ‘인민으로서의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이야기할 때, 타국학자의 연구를 간단하게 인용하는 것에 그치고, 게다가 공화국이 단순히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필요상, ‘북조(北鮮)’로 수립된 것처럼 방관적 입장을 가진’ 것이다. 요컨대 백종원은 김달수가 ‘융성발전하는 조국의 씩씩한 모습을’ ‘자랑스럽고 높게’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 다음 해에는 김달수 작품에 대한 서평이 게재된다. 김민의 「일그러진 조직과 인간(歪められた組織と人間 金達壽「委員長と新分会長」を読んで)」(1959년 2월 21일자)은 김달수의 「위원장과 신분회장(委員長と新分会長)」(『文学界』, 3월호)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작품 속에 ‘민戰(在日朝鮮統一民主戰線)’을 ‘在日朝鮮祖国統一民主戰線’으로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것과 이러한 명칭이 일본인에게 어떻게 불려도 상관이 없다는 표현은 ‘도착(倒錯)된 현실인식’이라며 비판한다. 또 상기의 백종원이 언급했듯이 ‘北鮮系朝鮮人’과 ‘南鮮系朝鮮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韓國”에 대립시켜 사용된 극히 정치적인 악의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조직과 인간’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공산당의 내부투쟁을 폭로한 「日本の冬」(1957)에서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을 왜곡하고 오늘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을 회피하고 두 개의 조선의 입장에서 쓴 「朝鮮」, 그리고 이 「委員長と——」에 걸쳐’ 작가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16) 오은영(2018b) 「『조선민보』(1958년 1월~1959년 2월)에 나타난 제일조선인 문학의 양상」 『제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 박문사, pp.177-179.

17) 백종원은 『アカハタ』(1959년 2월6일자, 7일자)에도 『조선』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재한다. 그 밖에도 이것에 대해 여러 미디어를 통해 비판되고 있었다(최효선의 『제일 동포 문학 연구』(문예림, 2002)를 참조).

이러한 비판과 대조적으로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祖国を思う心 — 金達壽著 『夜来た男』 —)」(1961년 4월 29일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夜来た男』는 「夜きた男」(1960)를 비롯해 「壺村吉童伝の試み」(1959), 「日本にのこす登録証」(1959), 「新潟から帰った人々」(1960) 등을 모아 1961년에 간행된 것이다. 작가의 주요한 테마의 하나인 남조선인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구국투쟁은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朴達の裁判」(1958) 등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외곽으로 추구해 온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夜来た男』에 수록된 작품 전체가 아니라 「夜きた男」에 대한 평가이다. 「夜きた男」의 내용은 ‘거창사건(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가족이 학살된 남조선의 한 교사가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일본으로 밀항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4·19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투쟁할 장소는 남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남조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 밖의 작품에도 작가가 재일동포들의 생활에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위의 작품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4·19혁명’과 남조선에서 온 교사가 ‘북’으로 가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남조선의 어지러운 정세를 피해 북한으로 가려고 일본으로 밀항한 교사가 다시 남조선으로 간다는 설정은 당시 귀국운동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쓰여진 이 작품을 부각시키려 했을 것이다.

앞의 수필과 소설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19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난 이후 문학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한국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이것을 작품 소재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평과 함께 희망에 가득 찬 북한과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쓰여진 책도 소개되고 있었다. 이진규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기록하다(在日朝鮮人にたいする差別政策をつく)」(1959년 10월 5일자)는 1958년 메이테이에 참가한 재일조선인 데모대에 깊은 감명을 받아 노동자 르포르타주집단(일본 노조 기관지 편집자들)에 의해 쓰여진 「일본인이 본 재일조선인(日本人のみた在日朝鮮人)」(日本機関紙通信社, 1959년)에 대한 평이다. 이 책은 재일조선인의 생활, 교육, 보건,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빈곤과 차별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일조선인의 도향 과정, 일본인에 의한 차별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단지 귀국운동 전에 쓰여진 책이라 공화

국이 크게 비약하고 있는 점은 그다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귀국하는 조선인은 일본인과 웃는 얼굴로 헤어지려’ 하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일본인이 읽기를 바라는 책이다. 그 외에 김민의 「待望された啓蒙誌—《新しい世代》創刊号を讀んで」(1960년 2월 1일자)는 조선청년들에게 조국의 실상을 알리고 민족적인 자각을 갖을 수가 있게 하는 잡지 『新しい世代』(일본어판)가 창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한국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 그리고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서평 부문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재일조선인문학’의 틀과 특징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학영의 「凍える口」(1966), 이회성의 「またふたたびの道」(1969), 김석범의 『遺された記憶』(1975) 등에 대한 평¹⁸⁾을 보면 일본문단에서 재일조선인작가에게 원했던 것은 일본인 작가와 다른 것, 그리고 보다 조선적인 것이다. 1958년 8월 23일자 『조선민보』의 문화운동의 전진을 위한 좌담회(남시우(시인), 정태우(연출가), 립경상(본사 기자--사회), 김민(작가)가 참가)에서도 ‘시사적인 것과 재일 동포들의 생활을 정면으로부터 그리는데’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재일 조선인에게 지향성’과 ‘나아가서는 널리 조국 인민과 타국민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사상, 정치적인 면을 떠나서 일본문단에서 보는 ‘신선미’ 또는 ‘특수성’은 재일조선인 특히 총련계와 관련된 사람들은 문화운동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다. 즉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켜온 재일조선인에 의해 ‘조선적인 것’ 또는 ‘조선인상’이 그대로 그들의 글, 문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총련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의 『조선총련』이 창간된 1956년 12월부터

18) 江藤淳他(1966年11月号)「文芸賞 選後評」『文芸』河出書房新社, pp.105-106

江藤淳他(1969年6月号)「第12回群像新人文學賞発表」『群像』講談社, p.134

阿部昭他(1977年4月号)「読書鼎談 水上勉『寺泊』、金石範『遺された記憶』」『文芸』河出書房新社, pp.249-253

1962년 12월까지를 중심으로 기관지에 실린 소설을 비롯해 문학과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사회나 그 문학의 변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조선시보』는 총련 기관지 일본어판으로서 일본인에게 조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조선어판 『조선신보』와 발행 의의는 다르고 신문에 게재된 작품의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또 『조선총련』에서 『조선시보』로 개제되고 나서는 점점 북한과 총련의 방침에 의해 작품의 내용이 변하는데 당시 창작활동이 활발했던 허남기, 이금옥 등의 작품에서도 그 변화를 볼 수가 있다. 허남기의 시는 재일조선인이나 귀국운동에 관한 것에서 조국과 총련의 입장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금옥의 시처럼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북한의 ‘남녀평등’ 장려에 의한 여성의 모성이 강조되어 그것에 민족과 조국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창작소설은 2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은 총련의 입장보다는 재일조선인의 일상생활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조선시보』에는 『조선신보』보다 창작 작품이 적고 일본인에 의한 기사의 비율이 많다. 이것은 창간호에 쓰여진 것처럼 일본과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의미도 있지만 조선어로 창작활동하는 것을 좀 더 권장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련계의 재일조선인이 북한을 지지하고 정책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즉 일본에 있는 조선인의 삶을 그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解放新聞』, 『朝鮮民報』, 『朝鮮新報』, 『朝鮮總連』, 『朝鮮時報』

[작품집·연구논문 등]

金達壽(1980) 『金達壽小説全集 二』 筑摩書房

許南麒(2006) 『〈在日〉文學全集 第2卷 許南麒』 勉誠出版

宋惠媛(2014)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 岩波書店, pp.82-87.

洪ジョンウン(2015) 「女性同盟」とオモニ・アイデンティティー—1960年代在日朝鮮人の民族運動における

- 女性たちの遂行性を中心に― 『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 関西社会学会, pp.5-11.
오은영(2018a) 「在日朝鮮人文学における様相― 『解放新聞』 (1952年9月~1953年12月)を中心に―」 『日本文化学報』 제78집, 韓國日本文化学会, pp.317-344.
(DOI:https://DOI.org/10.21481/jbunka..78.201808.317)
_____(2018b) 「『조선민보』 (1958년 1월~1959년 2월)에 나타난 제일조선인 문학의 양상」 『제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 박문사, pp.177-179.

논문 투고 일자 : 2019. 03. 31.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要旨>

在日朝鮮人文学の様相
— 『朝鮮時報』を中心に—

吳恩英

『朝鮮総連』は、多くの日本人に朝鮮のことを正しく伝えるために、また日本と親善関係を深めるために、1956年12月から刊行された日本語版の総連の機関紙である。1961年1月には『朝鮮時報』に改題し、北朝鮮と韓国的情勢変化により掲載される記事の内容も次第に変わっていく。

『朝鮮新報』(朝鮮語版)には、小説が不定期的ではあるものの、連載されている。これとは対照的に『朝鮮時報』には詩が多く掲載されている。その中で許南麒の詩は、『朝鮮総連』に掲載されたものは、主に在日朝鮮人や北朝鮮への帰国に関するものであるが、『朝鮮時報』に書かれた詩は、彼の祖国、総連の立場として対外的な活動を基にしたものである。また李錦玉の詩のように、朝鮮学校に通っている子供の様子から、「男女平等」の奨励により、女性の母性が強調されていくものによって変わっていくことが分かる。また創作小説は、二編が掲載されているが、いずれも登場人物は総連の立場からというより在日朝鮮人そのものを描いたとも言えよう。

『朝鮮時報』には、全体的に『朝鮮新報』より創作作品が少なく、また日本人による記事も『朝鮮新報』より多く掲載されている。これは、創刊号に書かれたように、日本との親善関係を深めることをより重視していたからであり、また、小説などの創作は、『朝鮮新報』に書くように勧められていたとも言えよう。

Literatur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 Analysis of *Chosen Jiho*

Oh, Eun-Young

Choson Chongryon is a bulletin of Choson Chongryon which has been published since December 1956. It is a Japanese edition whose objective is to convey accurate information about Korea to the Japanese and to promote goodwill between Japan and Korea. The title changed to "Chosen Jiho" in January 1961, and the content also changed given the changing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Choson Sinbo (a bulletin of Chongron), although irregularly, serializes novels. In contrast, *Choson Jiho* publishes many poems. Examining Heo Namgi's poems, the themes differ from poems in *Choson Chongryon* and those in *Choson Jiho*. While his poems in *Choson Chongryon* are concerned with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ose returning to North Korea, those in *Choson Jiho* are about his home country, based on his experience in Choson Chongryon. Lee Geumok's poems changed from descriptions of children going to Chousengakkou to emphasizing maternity while encouraging gender equality. Two original novels are published in *Choson Chongryon*, and both are not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Choson Chongryon. Instead, they describe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general, *Choson Jiho* has less original works and more articles about the Japanese than *Choson Sinbo*. As noted in the first issue, it is because *Choson Sinbo* emphasizes promoting goodwill between Japan and Korea, and also because Korean creative writing was encouraged in *Choson Sinbo*.